


2023 열고닫기 서포터즈  
말랑대나무숲 대학생 숲지기

opcl.kr 열고닫기

어디가

# 말랑대숲



## 청년정책

## 용어집



말대숲 청년정책 용어집은  
청년정책 정보 플랫폼 '열고닫기'의 서포터즈  
말랑대나무숲 대학생 숲지기 팀이 제작했습니다.

**열고닫기**

이메일 [helloworld@dodohancollabo.com](mailto:helloworld@dodohancollabo.com)

대표전화 070-4159-5014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2023.11.24

# 열고달기 알아보기

## 개요

청년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책·정보를 전달합니다.

## 서비스 연혁

- 2020.8. 정식 서비스 런칭  
서울대학교 해동주니어 스타트업 선정
- 2021.9. 우리금융 디노랩 2.5기 선정(ESG)
- 2022.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 우수사례 기업 선정
- 2023.1. NHN PAYCO 데이터, 콘텐츠 협약
- 2023.6. 과학정보통신부 정보문화유공 장관 표창
- 2023.8. 월 평균 이용자 7만명 총 서비스 이용자 45만명 **NOW!**

## 프로세스

일일이 정보를 찾는 어려움 해소!



정부/기관 → 열고달기 → 2030 청년

### 맞춤형 정책 추천

'열고달기'는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금융, 행사·교육 등 약 3,200개의 정책정보 데이터와 11,000회 이상 개인화 응답 정보를 통해 총 45만 명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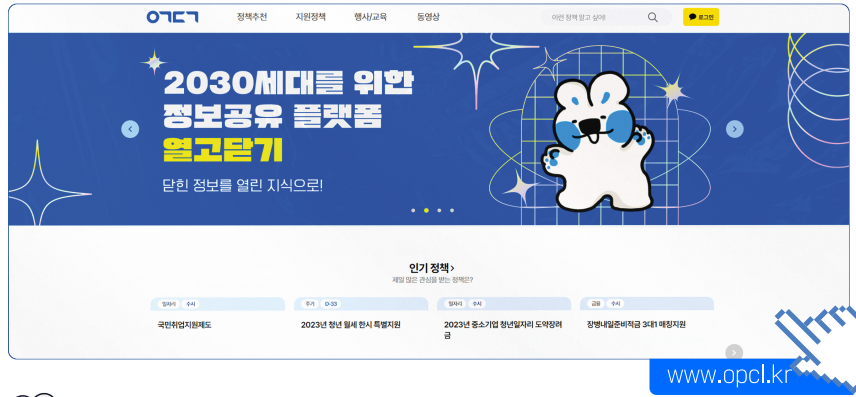
(매월 20% 이상 성장 추세, 월 7만 명 이용)

## 사업화 영역

청년 정보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청년 데이터 분석 및 연구

청년 대상 사업 기획 및 운영 (ESG 등)



## 숫자로 보는 주요 기능



**10개 카테고리**  
문화복지, 주거,일자리,  
금융 등 공공·민간  
통합 정보 제공



**30초 소요**  
설문 응답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약 3,200개**  
전국 대상  
청년 정책 및  
관련 정보 수집

## 서비스 이점 및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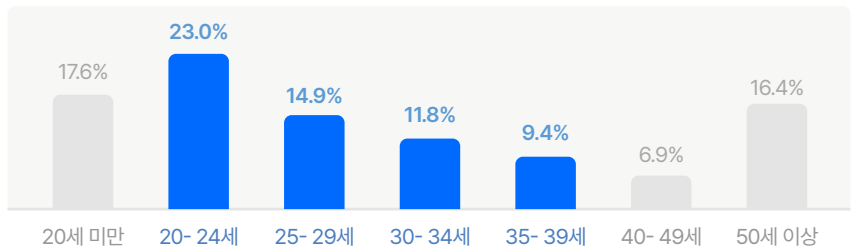
다양한 정책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2030 플랫폼

사용자의 관심분야 및 상황에 따른 맞춤 정보 추천

맞춤 정보 전달 및 데이터를 통한 트렌드 분석 등 기술력 확보

## 이용자 분석

열고달기 GA (2022.8.~2023.8.)



## 협업 및 파트너 기관





# 청년정책을 모르는 또 다른 정아기, 김청년에게



## 영자(김민선)

안녕! 나는 모든 정아기, 김청년의 친구, 열고닫기의 영자야. 나와 8명의 말대숲 친구들은 '열고닫기 서포터즈: 말랑대나무숲 대학생 숲지기'라는 활동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마음껏 떠들기 위해 모였어.

나를 위한 청년정책을 더욱 '내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용어집을 통해 8명의 친구들이, 청년정책에 등장하는 100개의 용어를 정리해봤어. 아직 청년정책에 낯선 너희와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던

청년정책 이용을 함께 해줄 거야. 가장 쉽고, 친절한 언어로, 네가 청년정책을 이용하는 순간에서, 용어로 의해 야기되는 오해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어.

단어와 그 뜻을 간결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서, 실제 친구가 옆에서 대화하면서 설명해주는 용어집이라는 느낌을 받을 거야. 청년정책 용어 해설과 그 속

에 담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청년과 청년정책 사이의 좋은 첫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정책의 주인공은 청년이야. 정책 용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이야기, 확인할 준비됐니?  $4 \times 4 = 16!$

## 올리브(박오름)



난 사실 청년정책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위축되거나, 더 알아보기 귀찮아서 신청 안 하고 관둔 적이 많았어.

예를 들면 '나 정도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지?',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내가 무주택자인가?', 'CB 점수가 뭐고 나는 몇 점..?' 같은 것들 말이야. 내가 만약

열고닫기 서포터즈를 안 했더라면 난 언제 이 용어와 친해졌을지 짐작도 안 가. 근데 나 혼자 이 많은 용어를 다 알아봤냐고? 아니! 서로 알려주고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했달까. 나처럼 용어 때문에 정책에 거리감이 드는, 막상 신청하려면 왠지 귀찮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용어집을 참고해 보길 추천해. 우리가 한 달간 공부하고 알아본 것들을 핵심만 담아놨으니 청년정책과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 오한솔

이전부터 타 기관에서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하고 있었는데, 마냥 홍보만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같은 청년으로써 여러 정책들을 이용할 때 용어들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적도 정말 많았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느끼던 중 이 열고닫기 서포터즈를 접했고! 덕분에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여 알려줄 수 있게 되었어. 모두 청년정책을 찾아보고 지원할 때 이 용어집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라! 언제나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모든 청년을 응원해 :) ♥



## Sophia(김청아)

청년정책은 현시점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했어. 개인적으로 집안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거든. 거기에 곧 취업을 해야 하는 대학교 4학년으로서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컨설팅을 받기도,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지. 이때, 청년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용어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 저절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실제로 정책도 이용하고 있어! 나처럼 현실이 막막하고 주변에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인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 가족,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더 큰 범위의 사회인 국가에 너의 고민을 토로하고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책 용어부터 시작해보는 거 어때?



## 서녕(노선경)

정책용어집을 보는 너! 청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나는 청년정책은 잘 모르지만 이용해보고 싶은 욕심은 많은 청년 중 한 명이었어. 경제, 문화, 서비스의 측면에서나 지원 내용만 보면 혹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막상 지원하고자 지원 조건이나 대상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ㅠ'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나도 그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막연한 정책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 같아.

그런데 정책과 관련된 용어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정책 공고들 속 용어의 뜻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 이 정책용어집을 읽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 용어집이 앞으로 여러 청년이 청년정책을 이해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



## 지꼴이(정지원)

나는 '정책'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4주의 서포터즈 기간 동안, 내가 평생 알아 온 정책보다 이번 4주간 알게 된 정책이 훨씬 더 많아서 뿌듯해. 특히, 정책 용어집을 정리하고 제작하는 활동은 내가 그동안 모호하게 알고 있던 개념이나 아예 몰랐던 개념,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쳤던 개념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내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어. 우리가 발간하게 될 정책 용어집을 통해 홀로서기의 과정에 있는 수많은 청년이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집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에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여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정책들을 찾아보거나 용어집을 보다 보면, LTV, DTI, DSR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 흠칫 놀라 도망가지 말고 딱 한 번만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면, 정책과의 거리는 차츰차츰 좁혀질 거라고 확신해. 정책에 무지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청년들에게 열고닫기 플랫폼과 정책용어집이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



## 완두콩(성호연)

청년정책은 아는 사람만 아는 기분이었고, 대부분 주거 쪽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아직 자취하지 않는 나에게는 정말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특히,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용어들만 나와서, 시도를 해보려 해도 점점 더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로 보였어. 그러다가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서 용어에 대한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아. 예전에는 열어보지 않았던 어려운 용어들을 직접 찾고 나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다 보니, 점차 많은 글이 읽히게 되고 청년정책이 원하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달까? 이제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피하기보다는 이해할 때까지 검색해 보기도 해! 정책은 언제나 맘을 열고 있어. 물론 조금 무서워 보이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보인다면 그만큼 더 많은 정보가 보일 거야. 친구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매력을 보게 되는 것처럼! 나는 청년정책이 앞으로의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너에게 있어 평생 함께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길 바라:)



## 로쿠리(유시원)

이번 서포터즈 활동이 나에게서는 앞으로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과정 같았어. 청년정책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나는 그 중 받는 게 교통지원 정책 한 가지밖에 없었어. 그마저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았지. 청년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엮이고 싶지 않았어. 다가가기 어려운 친구 같았달까?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용어의 측면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 사실 우리가 정책 이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이 각종 지원 조건, 지원내용, 신청 절차 등을 이해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일단 거기에 쓰여있는 용어가 낯설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니까 나의 경우에는 정책 이용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어. 이런 마음을 이번 말대숲 서포터즈를 통해 용어집을 만들면서 없앨 수 있었어. 청년정책은 청년의 '친구'야! 나뿐만 아니라 이 용어집을 활용하는 친구들도 청년정책과 친한 사이가 되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 요쿠르트(김태섭)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관심도 없었던 내가 서포터즈를 통해서, 청년정책 존재 이유와 그 목적, 그 안의 용어를 공부하면서 청년정책에 더 빠져들 수 있었어. 해당 정책을 공부하면서 이런 정책들로 나의 문제 고민이 무조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시작할 때 이 정책들이 중요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청년정책의 그 의미와 대상, 조건,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정책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날개를 펴기까지 그 힘든 기간을 함께 버텨줄 수 있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용어집을 보는 모두가 청년정책 전문가로서 본인의 멋진 미래를 그려 나가길 바랄게!



## 꾸망(원규희)

공고문을 보면 어려운 용어 때문에 놀라곤 해요. 정의도 따로, 조건도 따로. 어려운 정책 용어를 이해하는 것들이 또 다른 번거로운 일로 느껴지죠. 어쩌면 정확한 정의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친구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언제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용어집이 좋은 친구처럼 도와줄 거예요. 용어집 하나하나의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보세요!





# · 찾아보기 ·



가족돌봄청년	4
감정평가액	4
갑종근로소득세	5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고용위기지역	6
공공주택	7
고용보험	8
공과금 예치금	8
공급면적	9
구직급여	9
구직단념청년	9
구직촉진수당	10
국가장학금	11
국민연금	12
권리분석	12
근속장려수당	12
근로장려금	13
근린생활시설	14
금융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15
기본소득	16

기초생활수급자	17
---------	----



내일배움카드	18
누진공제	19~20



다자녀가구	21
대체취득	21
대출원리금	22
도시근로자 소득	22
등기	22
등기부등본	23~24



라이프스타일	25
리필스테이션	25

다음 페이지로 이어져요! ▶



마이너스 통장	26
마일리지	26
무주택 세대주	27



바우처	28
바우처 제도	29
반전세	29
법인	30
법인세	30
보증부 월세	31
복지포인트	31~32
부동산중개보수	33
부양의무자	33
분할상환	34
비과세	34
비영리법인	34~35



사업소득	36
상한요율	36~37
세대주	38
세액공제	38
소득공제	39
소비향락업	39
순자산가액	39

신용점수	40
실업급여	40



연립주택	41
연말정산	41
영리	42
영세 자영업자	42
영케어러	43
요양급여	43
우대금리	43~44
원리금	45
원천징수	45
월세	46
육아휴직	46
용자	46
이자 소득	47
이전공공기관	47
인센티브	48
임대료	49
임차계약	49
임차료	49
임차보증금	50
잇힐 권리	51



자립준비청년	52
장기미임대	53

전세	53	m <sup>2</sup>	67
조기재취업수당	53		
종합소득세	54		
주거급여	54		
주택	54		
주택공시가격	55		
중개보수	55		
중도상환수수료	55		
중위소득	56~57		

## ★

차상위계층	58
채권	58
초입금	59
취업취약계층	59
취업애로청년	59~60

## ★

탄소중립	61
통상임금	61

## 영문 외 ★

4대 보험	62
DTI	63
DSR	64
ESG	65
LTV	66



## 01. 가족돌봄청년

by. 로쿠리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세~34세의 청년을 말해.

\*참고자료: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02. 감정평가액

by. 완두콩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이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야.

내가 A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전당포에 가서 물건의 가치를 매기겠지? 그럼 감정사는 물건의 가치를 매겨서 돈으로 바꿔줄 거야. 이처럼 집의 가치를 매겨서 돈으로 바꾸었을 때, 그 금액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해.

줄여서 갑근세라고도 하는 갑종근로소득세! 이때의 '갑'은 '갑과 을'할 때의 그 갑!이야. 실제로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했다고 해. 갑종은 직장인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원천징수 대상이야. 을종은 외국 기관과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지. 그러나 2009년 세법 개정안 이후부터는 갑종과 을종의 구분을 없앴고 갑종의 범위 내에서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기로 결정되었어.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 04.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관공서와 공공 기관 등에서 확인 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서류야.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명세가 포함되며 소득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보통 금융권 제출이나 연말정산, 소득증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조사를 통해 특정 지역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 그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특별 지정하여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확인 가능해. 제4조의 내용 중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해. 그리고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보험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거든? 근데 피보험자가 줄었다는 건 곧 고용된 근로자가 줄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 돼. 그래서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 쉽게 말해, 국가의 재정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구매하거나 빌려서 공급하는 정책이야. 공공주택에는 종류가 많아서 다음의 도식으로 대신할게!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참고해~!

[공공임대주택종류](#)

[공공분양주택](#)

사회보험 중 하나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야. 흔히 실업급여를 많이 떠올리는데 맞아.

회사가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돼. 만약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지만 일부 제외되는 대상들도 있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 08. 공과금 예치금

공과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비용 부담을 의미해. 전기료,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 등이 포함돼.

예치금은 준비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맡겨 둔 돈이라고 할 수 있어. 예시를 보면 공과금 예치금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계약해 들어갈 때, 월세 정도의 비용으로 공과금 등과 같은 위험 부담을 위해 미리 돈을 맡겨 두는 것이야. 왜냐하면 공과금은 지출 원인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특성이 있거든? 그래서 납부하는 날과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예치금을 걸어 두는 거지.

이 후에, 미리 납입한 예치금으로 공과금 정산이 끝나면 잔금은 돌려받으면 돼.



전용면적(침실, 주방 등)과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등)을 합한 면적으로, 전용면적은 주거용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해! 현관문을 기준으로 세대 내부의 공간인 거실, 주방, 화장실, 침실 등이 포함되지!

그리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거주지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면적을 뜻 해.

## 10. 구직급여

보통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통칭해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야.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여부가 급여 지급의 가장 큰 조건이 돼!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네이버 블로그

## 11. 구직단념청년

직업을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청년을 말해.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정의하는 구직단념청년의 기준은 만 18세~34세의 무직 청년 중,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이력이 없어야하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에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일 때, 구직단념청년이라고 말해!

이때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는 포함이 안 돼!

## 12-1. 구직촉진수당

by. 오한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중 하나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야. 때문에, 부가급여의 성격을 띄고 있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해.

## 12-2. 구직촉진수당

by. 요쿠르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하나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구직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세운 2개 이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혹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성실히 수행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취업제도는 I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는데, I유형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알아 댜.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4회 차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면, 취업의 방향성도 다시 잡아보기 위해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과 그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연간 최대 35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야.

학교 웹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하라고 하는 안내 많이 봤지? 나도 신청하고, 구간 선정에 따른 금액을 영문도 모르고 받았었는데, 집중해!

국가장학금은 I, II 유형, 다자녀 유형으로 나뉘는 데, 먼저 I 유형은 소득수준(1-10구간)과 연계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8구간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마련해주는 거지. 직전 학기 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해. 또, 다자녀 유형은 I 유형과 소득, 심사 기준이 같지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고, II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이야. 당연히 I 유형, 다자녀 유형에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겠지?

## 14. 국민연금

by. 지꼴이

국가에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금제도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되지! 소득활동을 할 때 국민연금 가입 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노후에 혹은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야.

**\*특수직 종사자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별법에 의해 연금제도가 운영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돼.

## 15. 권리분석

by. sophia

주로 부동산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그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의 결함은 없는지 조사하는 거지. 매수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안전한 부동산인지 추후에 일어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을 말해!

## 16. 근속장려수당

by. sophia

전과는 다르게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요즘의 시류가 개인의 기호나 의지에 따라 쉽게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근로자의 복지를 통해 고용촉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계속 근무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야!  
2022년 경북 청년애꿈 청년 2022년 경북 청년애꿈 정책에서  
설명하는 근속장려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청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이었어.  
월 급여가 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어!!

\*참고자료: 열고닫기 홈페이지

## 17. 근로장려금

by. 로쿠리

일은 하고 있으나 생활하기엔 여전히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엔 일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운데, 근로장려금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는 계속해서 일을 이어 나가게 하고 동시에 소득에는 보탬이 되어주는 제도를 말해.

정기신청은 매년 5월 한달 동안 가능하고, 만약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원래 지급액의 최대 90%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꼭 5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최대지급금액은 330만 원이야.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이고,  
홀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이고,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이야.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라!

생활시설은 아는데, '근린'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지? 근린이라는 한자를 풀이하자면, '가까울 근'에 '이웃 린'을 쓰는 한자어로 가까운 곳으로 집 주변 상가라고 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이유는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상가'로 더 줄여부르기 때문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주택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슬세권으로 '슬리퍼를 신고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이해될 거야!

## 19.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때 누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고 불러! 그렇다면 금융소득은 뭘까? 종합과세는 6가지 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이를 모두 합한 소득이 바로 '종합소득'이 돼!

여기서 6가지 소득은 연금, 기타, 배당, 이자, 사업, 근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있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했을때, 우리가 원하는 '금융소득'이 나오게 되지.

원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과세가 아닌 '금융소득 분리과세'로 나누게 되는데, 만약 이때를 넘었다?! 한다면, 그때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르는 거야!

\*참고자료: 이병태(2023), 『법률용어사전』, 법문박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

## 20-2. 금융소득종합과세

은행의 예금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한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야. 세율은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지지.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을 합친 소득이 1억원이라고하면, 1536만원 + 420만원(1200만원의 35%)인 1956만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이 되는 거야.

## 21-1. 기본소득

by. 올리브

요즘 청년 정책 분야에서 적잖이 들리는 용어. 경기청년기본소득, 서울청년수당을 들어는 봤는데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냐고? 정부가 국민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야. 빈곤층을 지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말이야!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 장과 다른 점은 재산이나 소득 등의 수급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서울청년수당은 소득, 근로참여를 조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청년기본소득(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해 기본소득의 성격은 아주 열어. 그렇지만, 경기청년기본소득처럼 경제활동가능 인구인 청년이 현금성 급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소득 등 조건에 관계없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최소 한의 삶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

## 21-2. 기본소득

by. 오한솔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야.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해.



## 22-1. 기초생활수급자

by. 로쿠리

국가에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자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해.

- ① 실제로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의 합을 일정 비율로 환산했을 때 중위소득 30~50%에 들어야 하고,
- ②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 ③ 고정자산이 없어야 해. 혜택이 제공되는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 네 분야의 급여인데, 이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조건②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뒤!

## 22-2. 기초생활수급자

by. sophia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이 경제적인 이유(소득인정액이 적음)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인 계층을 말해. 이러한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의 국민들에게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가구에 지원하고 있어.



## 23. 내일배움카드

by. 오한솔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된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야. 실업자, 재직자,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돼.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고 해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청년, 노동시장 활동기의 구직자, 재직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또 생애전환기에 놓여있는 재취업 희망자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2021년에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미리 대학교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세율에 따라서만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인데 세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겠지! 그래서 누진세율의 구조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때 그 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을 빼 주는데, 그것을 누진공제라고해!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0,000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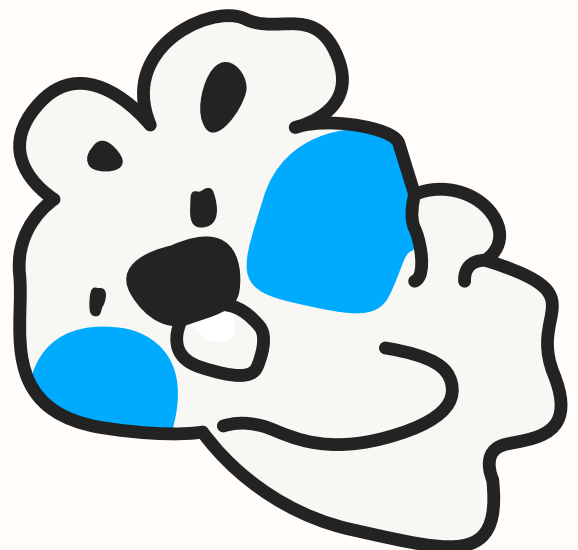
소득세율표를 보면 소득 공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 누진공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만약 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해서 누진공제액은 126만원이 돼. 이때 126만원은 현재 세율인 15%와 그 아래 세율인 6%의 차액인 9%만큼을 1400만원에 곱해서 나온 금액이야. 즉,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의 예시를 더 살펴보자!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해서 세율은



24%가 돼. 이 경우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이야. 1400만원까지의 세율인 6%와 현재 세율인 24%의 차이인 18%를 1400만원에 곱한 252만원과 [1400만원~5000만원]의 세율인 15%와 현재 세율인 24%의 차이인 9%를 그 사이 금액인 3600만원에 곱한 324만원을 더해서 576만원이 되는 것이지!

현재 나의 과세를 해당 구간의 세율에 곱한 후 누진세액을 제외하면 그게 최종적인 근로소득세가 되는 거야!





## 25. 다자녀가구

by. sophia

다자녀니까 당연히 자녀 1명을 둔 가구를 말하진 않겠지!?  
기본적으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뜻해!  
사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어.

## 26. 대체취득

by. 올리브

내가 가진 부동산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매수되거나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상금을 통해 그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토지,  
건물 등을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을 대체취득이라고 해.

## 27. 대출원리금

by. 오한솔

대출을 받으면 매달 대출받은 원금에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데, 이 때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대출 원리금이라고 해. 매달 동일한 원금을 갚을지, 아니면 동일한 원리금을 갚을지에 따라 상환방식이 나뉘지.

## 28. 도시근로자 소득

by. 요쿠르트

농림어가를 제외한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해. 농림어가를 포함한 소득 기준을 사용하면, 수도권에서 청약하는 사람들의 평균보다 기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소득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야. 주로 주택청약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기준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서 확인가능해!

도시근로자 소득은 소득 기준의 지표로서 중위소득과 많이 비교되는데, 중위소득과 차이점은 구하는 방식, 발표시기가 다르다는 점이야. 도시근로자 소득은 매분기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2~3월에 전년도 데이터가 발표되면 계산되어서 3월 중에 확정되고 기준지표로 사용되지만, 중위소득은 매년 7월경에 보건복지부가 책정하고 8월에 법령으로 제정해서 이듬해 1월 1일에 바로 적용이 되지.

## 29. 등기

by. 서녕

등기(登記)는 한자의 풀이를 이해하면 쉽게 뜻을 알 수 있어! 등기의 등(登)은 '오를 등'이고 기(記)는 '기록할 기'를 사용해. 이를 합하면 말 그대로 기록에 오른다는 뜻이지. 이때 기록되는 사항은 부동산의 ▶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한정되어 '부동산이나 선박, 공장재단 등기와 같은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 계약 등기 등의 재산 귀속의 등기, 법인 등기,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 등기'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면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선박, 부부재산약정과 같은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부동산등기법과 같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재하고 있어. 이때,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기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등기'라고 해. 그 내용을 기록하여 알림으로써 등기를 한 사람과 제3자의 경제활동과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 만약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 A가 집주인이라고 주장하여 돈을 주고 집을 샀어. 추후에 알고 보니 A는 그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고, 실제 집주인은 B였던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A는 돈을 들고 사라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때 A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거야. 이러한 사례를 막을 수 있게 정부가 보관하는 공적 문서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관계를 기입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등기의 목적이야. 개인이 보관하면 수정하거나 위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등기소라는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고!

## 30. 등기부등본



어디선가 '등기부등본'이라는걸 들어본 적 있지? 사실 나는 등기부'동'본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야. 등기부등본은 이와 같은 등기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제3자(외부인)도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나 임차 관계 등을 알 수 있도록 적어 놓은 문서야! 이때 공시력이 있어 제3자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

핵심이지!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해당 집의 주인과 거주자 등을 모두 알 수 있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는 모든 물건의 등기 현황을 열람할 수 있어.







## 31. 라이프스타일

by. 오한솔

라이프스타일이란 말 그대로 '삶의 방식'을 말해. 집단적인 성격을 띄는 문화와는 달리,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서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는 성격을 띄지! 건강, 문화, 소비, 금융, 결혼, 식사 등등 다양한 삶의 요소가 모두 라이프스타일에 포함될 수 있어.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 연구의 주요 분석 과제로 쓰여.

## 32. 리필스테이션

by. 완두콩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이라는 정책에서 나오는 용어야. 리필스테이션은 뜻은 알겠지? 다시 쓸 수 있는 장소라고 해. 리필스테이션은 탄소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여 자원 순환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어. 빈 용기를 가져오면, 내용물을 담아가는 매장으로 세제나 샴푸, 비누, 로션 등 다양함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장점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내용물만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지. 지구를 살리기 위해 기회가 된다면 이용해보자!



## 33. 마이너스 통장

by. 지꼴이

긴급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진 예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야. 쉽게 말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 통장의 개념이지.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대출하여 일정 기간동안 상환해야 하는 일반 신용대출과는 달리, 대출 조건이나 상환 방식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사용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자가 계산되고 높은 금리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시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일반 신용대출과 차이점을 잘 알고 사용해야 해!

## 34-1. 마일리지

by. 서녕

마일리지~ 마일리지~ 많이 들어 봤을 텐데 그래서 마일리지가 도대체 뭘까?! 원래는 이동거리의 단위인 마일(miles)의 의미였다고 해. 이후 미국 항공사에서 탑승거리(마일)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었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적립금 혹은 포인트와 같은 의미로 확장된 것이지. 탄소 마일리지와 같이 많은 정책들에서도 적립금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유래된 말로 승객의 탑승거리를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에 따라 일종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무료 탑승이나 좌석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야! 이런 방법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

고객은 상품을 이용하는 횟수나 사용량에 따라 점수, 즉 마일리지를 얻게 되고, 이 점수는 나중에 돈의 기능으로 바뀌게 돼!

## 35. 무주택 세대주

해당 용어는 '무주택'과 '세대주'가 합쳐진 말이야.

먼저, '세대주'의 의미를 알아보자. '세대'를 한 '가족(가구, 가정 등)'이라고 한다면, '세대주'는 그 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

이는 임의로 정해진 대표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야.

또한, '무주택'은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 이때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를 공유하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니 아래의 \*표시를 참고해줘!)

예를 들어, 내가 월세 원룸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1인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라고 할 수 있어. 만약 자취방 계약이 끝나서, 부모님이 계신 자가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나는 3인 가구의 유주택 세대원이 되는 거야.

\*청약홈 홈페이지 에서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과 관련된 법률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면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



## 36-1. 바우처

by. 올리브

'에너지바우처', '주택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등 많이 들어는 봤는데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더라? 바우처는 현금, 현물(물품)처럼 정책이 전달되는 형태 중 하나야. 쉽게 생각하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는지는 바우처 종류마다 달라. 만약 내가 문화바우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바우처 금액만큼 공연이나 전시를 예매해서 관람할 수 있는 거지!

## 36-2. 바우처

by. 로쿠리

바우처는 정부가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거야.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특정 계층의 소비자를 정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현금지원이 아닌 이유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소비자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제재도 어렵기 때문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공급처를 미리 정부가 지정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물건 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공급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거야. 바우처가 활용되는 정부사업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등이 있어.

\*참고자료: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 37. 바우처 제도

by. 오한솔

'더 나은 복지 세상'에 따르면, 바우처 제도란, 직업훈련 대상자에게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나와있어.

교육, 의료, 여행, 식품 등 여러 사회 분야에 걸쳐서 이용되고 있는데, 일종의 금액권이야. 해당 카드에 대한 가치와 금액을

인정해줌으로써, 바우처로서 그 쓰임이 인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의 효과성이 높아. 예를 들어, 식품 바우처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음식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듯이!

바우처 제도로 훈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훈련생이 책임 하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으며, 훈련생 모집을 위한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훈련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 38. 반전세

by. sophia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세와 월세의 혼합형인데 계약 시 일반적인 월세보증금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지불하는 대신 매달 내는 현금(월세)을 줄일 수 있어!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1년치 월세보다 많으면 반전세로 구분해!

법인은 법률에 따라 능력을 부여 받은 단체나 재산을 의미하면서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관계의 주체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법인은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분신이나 인격체로 생각해볼 수 있어!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법인 등록 번호라는 것을 부여 받게 돼!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그 특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익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특정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의 수입으로써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특정한 목적을 명시한 후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해.

법인은 사업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져.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생긴다면 온전히 그 책임을 개인이 지게 되지만, 법인은 법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한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사업 위험을 부담할 수 있어. 개인적인 부채와 사업 관련 부채를 구분하면서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또한, 법인사업자는 회사와 개인을 분리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사업주가 바뀌거나 사망해도 법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률관계의 주체인만큼 다양한 법률과 규정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운영에 있어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지.

## 40.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겨서 정부의 세입을 창출하는 방법이야. 법인세는 신고, 납부 절차가 꽤 까다로워서 미리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

먼저 법인세를 계산하려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알아 뒤야 하는데, 이걸 사업 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그 기준이 되어줘.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이 1%p씩 인하되어 9~24%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과방식을 '누진세'로 하는데, 그렇기에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져.

필요한 서류가 꽤 많아.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기!!!

\*참고자료: 리치랩 네이버 블로그

## 41. 보증부 월세

by. sophia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월세 제도랑 같은 개념이야!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 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 월세라고 하고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해.

\*참고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네이버 블로그

## 42. 복지포인트

by. 로쿠리

1.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해. 원래는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 서 만들어져서 지급되던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지자체에서도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고 해.

2.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그 지급 방식과 대상, 쓰임에서 차이가 있어.



## (1)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 ① 기본점수,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서 2005년부터 정식 지급되고 있는 포인트야.
- ② 기본점수는 400포인트이고, 부양가족 구성원에 따라 포인트가 달리 지급돼. 성과를 내면 그 보상으로도 주어지는데, 40,60,80,100 중에 성과가 높을수록 더 큰 포인트가 지급돼.
- ③ 1포인트는 곧 1천 원이고, 사용 가능한 분야로는 자기 계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레저/여행, 가정친화 등이 있어. 원래는 복지물에서만 사용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편의점까지 그 사용처를 확대하여 더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

## (2)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 ① 지자체 구역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 ② 활발하게 이 정책을 진행하는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있어. 현재 경기도는 여러 회 차에 걸쳐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어. 지급되는 금액은 1년간 120만 원 포인트야.
- ③ 많은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신청대상을 넓게 두고 있지만 주의사항도 있어. 만약 지자체의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이 정책과 함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해. 또, 아무래도 지자체별 정책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근로자가 이직, 퇴사 등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원래 받던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어.

\*참고자료: KB 저축은행 네이버 블로그



흔히, '복비'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주고 중개를 해준 것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해.

이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중개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 없어.

또한, 주택의 종류와 지역, 그리고 거래의 방식(매매, 임대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

각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거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활용 방법!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면, 이용 방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계산기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서울시 다세대주택 중 보증금 1000, 월세 50에 거래되는 월세 매물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4이므로 아래와 같이 24만원으로 계산이 돼!)

## 44.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들을 말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까지야. 단, 만약 수급권자가 아버지인데 그 사람의 아내와 자식 모두 사망했다면, 그 자식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모두가 부양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만약 부양의무자 자신 이 수급권자이거나, 그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단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를 '분할상환'이라고 한 대! 근데 솔직히 어렵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나는 분할상환이 카드결제라고 생각해. 돈이 없어 결제를 한 번에 하기 어려울 때, 3개월로, 6개월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하지?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잖아.

그것처럼 바로 돈을 갚기 어려울 때, 정해진 기간에 걸쳐 돈을 갚는 것을 말해.

## 46. 비과세

비과세는 뜻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면세와의 차이점은 비과세는 납세 의무가 애당초 발생되지 않아.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 혹은 신청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어떠한 행정 처분 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아.

'비과세종합저축제도'를 통해 비과세 개념을 설명해줄게. 이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지급 받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 원래는 이자와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일반 예·적금은 15.4%)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어!

## 47. 비영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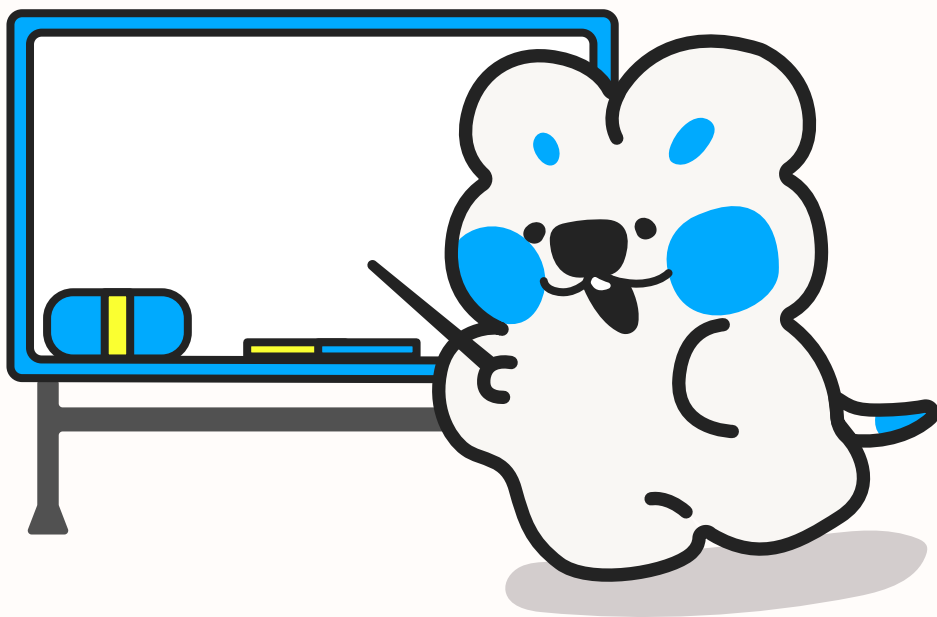
앞에서 '영리'와 '법인'의 의미를 알아 봤었어!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은 무슨 뜻일까? 단어의 뜻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 회사를 말해.

그럼 이러한 회사들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 비영리 단체의 대표적인 사례인 자원봉사 단체들의 사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특정한 사회적 의미나 뜻을 추구하는 것이지. 비영리법인도 종교, 자선, 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해.

그렇다면 이러한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을 추구하면 그것은 불법일까? 그 수익을 단체를 유지하거나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야! 대신 그 수익을 단체나 법인을 넘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돼.





## 48. 사업소득

by. 요쿠르트

사업소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해. 사업은 독립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이고, 사업소득은 이러한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을 의미해.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의 기준이 헛갈릴 수 있는데,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일시적인 특성을 갖는 기타소득과 구분하기 더 쉬울 거야.

**\*필요경비란, 사업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하는 경비를 뜻하는데,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이나 종업원의 급여 등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어.**

## 49. 상한요율

by. 지꼴이

우선, '요율'이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뜻해. 부동산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상한요율'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을 거야!

(부동산중개보수 뜻은 다음 용어 설명에서 참고~!) 수수료 계산 시에 '일정 기준 이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도'를 의미해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개인적으로 협의한 요율이

없을 경우,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계산돼.

서울시에서 매물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검색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부동산 중개보수**(seoul.go.kr) 해당 사이트의 요율표와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서울시 다세대주택 중 보증금 1000, 월세 50에 거래되는  
월세 매물이 있다고 해보자.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100)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서울시중개보수요율표에 근거하여  
1천분의 4, 즉 0.0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는 거래금액(6000  
만원)\*상한요율 (0.004%)인 24만원이 되는 거야!

아래는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율표!

거래내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생활단위의 세대를 대표하는 책임자를 의미해! '주'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가 쓰이기 때문에 한 세대, 주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세대주는 주택의 소유와는 별개이고,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소유자는 무주택세대주라고 해~!

## 51. 세액공제

근로소득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해. 즉,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일정 항목에 속해 있는 세금은 제외해주는 것이지! 소득공제는 세율을 줄여주는 역할이었다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이후 부과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야! 둘의 차이가 이해가 될까?

세액공제항목에는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이 있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예로 들어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18세 미만인 사람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들어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하지!!

## 52. 소득공제

by. 서녕

내가 벌어들인 소득인 총급여에서 내 통장에 들어왔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인적공제와 같이 금방 빠져나간 금액들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소득공제야!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은 소득에서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 53. 소비향락업

by. 로쿠리

소비·향락업은 쉽게 말해 우리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곳들이 있잖아? 그런 곳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이 해당돼. (더 쉽게 표현을 바꾸면 술집, 노래방, 클럽, 나이트 이런 곳을 말해!)

## 54. 순자산가액

by. 요쿠르트

순자산가액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부채를 차감한 값을 의미해. 국세청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먼저 빼고, 영업권 평가액을 더하는 거야.

1~100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야.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라고 불러!)가 개인의 소득, 직업 등의 신상 정보부터 과거 대출 이력, 연체 금액과 기간, 연체 반복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점수를 책정한다고 해. 불성실한 내역이 많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아지겠지?

그리고 신용점수가 낮으면 각종 거래나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

현재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민간 CB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 등이 있어. 각 평가회사마다 평가 방식과 항목별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다르게 책정된다고 하니 각 사이트에서 개별 조회를 해보길 추천해!

## 56. 실업급여

정확한 명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중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위로금 성격은 아니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걸 알아 뒤!





## 57. 연립주택

by. sophia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야.

다세대 주택과 구분해야 할 점은 연립주택은 한 개의 건물 당 건축연면적이  $660\text{m}^2$ 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다세대주택은 건물 당 건축연면적이  $660\text{m}^2$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해~

\*참고자료: 마이다스카드

## 58. 연말정산

by. 서녕

연말정산...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겠지?

근데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정산하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들지 않아?

연말정산은 원천 징수하는 소득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받는 것이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매월 급여, 가족 구성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의무자(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신고 및 납부해. 이후 다음해 2월말,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결정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야.

즉, 근로자들이 매번 세금을 신고를 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될 수 있으니 월급을 줄 때 일정액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은 경우 돌려주고 덜 걷은 경우 더 받는 것이지.

## 59. 영리

by. 서녕

‘영리(營利)’의 한자 뜻 풀이를 보면 영(營)은 ‘경영할 영’을 한자로 쓰고 ‘꾀하다’라는 뜻을 가져 리(利)는 ‘이로울 리’를 한자로 쓰면서 ‘이롭게 하다,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져! 이를 통해 ‘영리’는 유익함을 꾀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 경영함에 있어 유익함은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즉, ‘영리’는 이익이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 개인이나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나 그 수익 자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 60. 영세 자영업자

by. 완두콩

자영업자라는 뜻은 들어봤지? 하지만 영세는 무슨 뜻일까? 영세란 ‘살림이 보잘 것 없고 몹시 가난함’이라는 뜻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거나,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들을 말해. 주변에 있는 작은 마트, 푸드트럭 장사, 소규모의 음식점이 해당될 수 있어. 물론 규모를 크기로 나누기 애매하고, 국세법상에서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나 혜택이 있을 때 그곳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 61. 영케어러

by. 올리브

(영어로 된 정책 용어? 쫓지 마.) 영케어러는 최근 정책 특히, 사회 복지분야에서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해. 청(소)년을 뜻하는 'Young'과 돌봄 제공자라는 뜻의 'Carer'가 합쳐져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 일컫는 말이야.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말 로도 쓰이고 있어.

## 62. 요양급여

by. 오한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보험관장자)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며 진찰, 약제 또는 치료, 이송료 등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

## 63-1. 우대금리

by. 올리브

청년 금융관련 지원 제도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야.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뭘까? 금리는 저축할 때와 대출할 때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알고 있지? 저축할 때는 금리가 높아야 이득이고, 대출받을 때는 금리가 낮아야 이득이잖아. 그래서 우대금리가 뭐냐면!

① **저축할 때:** 금융 기관에서 이용 실적이 좋거나 특정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더 많이 이자를 붙여 주는 것

② **대출받을 때:**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  
청년 금융 관련 제도에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알아 뒤!

## 63-2. 우대금리

by. 로쿠리

'우대'와 '금리'의 합성어로, 은행에서 대출 시 부과하는 이자율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걸 의미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자를 훨씬 적게 낸다는 특징점을 주는 금리이지.  
단, 혜택이 좋은 만큼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조건도 다양한데,

- ① 신용등급이 좋아야 해. 나의 신용등급은 내가 금융업무를 함에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고, 대출금 상환도, 카드 사용료도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할 때 좋아질 수 있어.
- ②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장기 고객이어야 해. '장기 고객'이라고  
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연체 등의 은행 업무 관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고객임을 나타내기 때문 이야. 은행과 신뢰가 있는  
사이라는 거지!
- ③ 각 은행 별로 홍보하는 특정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이용하는  
중이거나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 ④ 은행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저축해 놓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에  
해당될 수 있지. 이 조건들을 거의 기본으로 하나, 각 은행 별로  
우대금리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 두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꼭! 확인해  
보길 바라!

\*참고자료: 부동산 쇼핑몰 네이버 블로그

이 용어는 대출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어, 대출원리금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뜻하는 말이야. 대출 시 상환방식 중 하나로 '원리금균등상환'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을 텐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 65-1. 원천징수

소득에 붙은 세금을 수입을 벌어들인 소득자(납세의무자)가 아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시스템이야. 직장인의 경우 월급은 여러가지 세금이 미리 차감되고 입금이 되는데, 이게 바로 원천징수 때문이야! 회사에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에 이를 제외한 급여만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세금 누락을 막고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

### 65-2. 원천징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내야 할 세금을 월급에서 미리 제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받는 거지.

부동산을 빌려주는 대가로 적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달마다 내는 금액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매달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전세나 매매를 할 수 있는 큰 돈이 없을 때 적은 돈으로 집을 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 67. 육아휴직

근로자가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 후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는데 그걸 육아휴직이라고 해.

육아휴직 대상자에는 임신한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등이 해당돼. 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아이의 안정적인 발달을 돕고,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며, 아이 양육으로 인해 잠시 휴직 상태여도 계속해서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야.

또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남녀 모두 양육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 졌어.

\*참고자료: 공준모 네이버 카페

## 68. 융자

융자는 대출의 개념과 유사하게 자금을 빌리는 개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출보다 더 넓은 개념이야. 채무를 떠올리는 것도 융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개인, 기업에게 빌려주는 것이라면 용자는 돈을 빌려주는 그 주체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이 될 수 있지. 용자를 받은 사람은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해! 용자의 종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

먼저 개인이 하는 용자, 두 번째 국가가 하는 용자, 세 번째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하는 용자, 마지막 일반 사업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하여 하는 용자. 흔히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용자의 개념은 개인의 용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내가 부족한 만큼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대출을 받는 대가로 내가 사려는 집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지. 그러면 부족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아 집을 구매한 나는 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

## 69. 이자 소득

by. 오한솔

자본 또는 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아.

-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의 이자와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 ②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 관련된 소득

\*참고자료: 신안산대학교 홈페이지

## 70. 이전공공기관

by. sophia

수도권 중심의 인구밀집 현상을 해결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같이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원래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

혁신도시로 옮기는 것을 말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거주이전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좋아~ 세종 시의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 단중앙회 등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야.

\*참고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 71-1. 인센티브

by. 요쿠르트

인센티브는 유도, 자극, 조성 등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극,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한 유도,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동기와 몰입을 주기 위해 성과급을 준다고 할 때 이 성과급을 우리는 인센티브라고 부르기도 해.

## 71-2. 인센티브

by. 오한솔

공부나 일 등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해. 포상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어.

- ① **이익분배제**(PS; Profit Sharing): 초과이익분배금
- ②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PI; Performance Incentive): 생산성 격려금
- ③ **목표할당량에 따른 인센티브**(MI; Motivate Incentive): 회사의 성과, 팀내에서의 개인 성과와는 별개로 개인에게 부여된 1년동안의 목표 할당량을 모두 채우면 지급되는 인센티브

\*참고자료: 잡보너스 네이버 블로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해! 많은 사람들이 임차료와 임대료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료는 임대인(빌려주는) 입장에서 받는 수익, 임차료는 임차인(빌리는) 입장에서 지급하는 지불금액이야!

## 73. 임차계약

정책이나 기사들을 보다 보면 '임차계약'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임차계약' 은 '임대차계약' 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야. 한 사람은 물건을 제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일정 비용(임차료)을 지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이지.

이때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임대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불러!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들어봤을 텐데,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과 같은 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지.

## 74. 임차료

타인의 부동산을 빌리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해.

부동산시장의 시세와 부동산 목적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세부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절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단어를 임차와 보증금으로 나눠야 할 것 같아.

**‘임차’**는 요금을 내고 물건이나 다른 물질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나는 의상을 임차 했어!) 돈을 내고 옷을 빌렸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임대’**와 **‘임차’**의 차이야!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임대란 빌려주는 경우 임대라고 해.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임대’**,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것을 **‘임차’** 라고 해!

그리고 보증금이란 미래의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걸어 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 임차보증금이란, 집을 빌릴 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얼마의 비용(담보)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 75-2. 임차보증금

**‘임차’**가 돈을 주고 빌려 쓰는 행위라는 의미니까,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이해하면 돼. 자취방을 월세로 구한다고 하면, 집을 이용하며 월세 미납,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집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돈을 지급하는 거야.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해당 비용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전액 회수하게 되므로, 없어지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

반대로, **‘임대’**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니까, 물건의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겠지?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 만료 시 반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두어들이거나 축적되는 수입 혹은 자산으로 보지 않아!

추가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매달 지급할 것(월세)을

약속했지만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매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 지급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 76. 잊힐 권리

by. sophia

인터넷의 상용화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간과 범위가 늘어나면서 논의된 권리로, 원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가 올라가거나 한 번 등록되면 완전한 삭제가 힘든 인터넷 환경에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정해 영구적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 77. 자립준비청년

by. 로쿠리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꾸었어. '아동'이라는 단어는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아직까지는 어른의 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느낌이 있잖아. 그렇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은 만18세 이후 보호시설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능동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 따라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름을 바꾼 거야.

자립준비청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살고 있던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나와 스스로 돈을 벌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해. 그런데 이 친구들 역시 사회에 처음 나왔어. 무엇보다도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줄 멘토가 필요하다고 해! 멘토에게 질문하고, 같이 자립 준비를 해가며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아 형성의 측면에서도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지.

용기 있게 사회에 나온 친구들이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소모임, 교육프로그램, 동아리 등을 꾸려 이미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참고자료: 청년재단 네이버 블로그

## 78. 장기미임대

by. 올리브

SH, LH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실인 곳을 말해.

## 79. 전세

by. sophia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 집을 빌리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큰 목돈을 맡기고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야! 전세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내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전세대출 받아서 지불하게 되는데, 요즘과 같이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은행에 매달 내는 대출금이 월세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있어서 월세를 선호하기도 해.

## 80. 조기재취업수당

by. 오한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되고,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의 종류가 조기재취업수당이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야.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급여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대기기간"을 가지게 되는 데, 일정 대기기간인 7일이 지났으면서, 급여를 받을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 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②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

국가가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수당이야.

## 81. 종합소득세

by. 지꼴이

우선 '종합소득'이란, 각종 소득 중 6가지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말이야.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걷는 세금을 말해.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시 법률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 하지만,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건 [국세청 홈페이지](#) 를 참고해!

## 82. 주거급여

by. sophia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23년 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야!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그의 소득인정액,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어~

\*참고자료: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 83. 주택

by. 지꼴이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말하며,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해.

## 84. 주택공시가격

by. 지꼴이

이는 각종 주택에 대해 조사하여 매년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걸 뜻 해. 쉽게 말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판단하여 '집값'을 산정한다는 말이야.

집값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 하지만, 실제로 주택이 거래되는 금액인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 뒤!

주택공시가격은 크게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되는데,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을 의미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가리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검색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 85. 중개보수

by. 올리브

집을 빌리거나 매매할 때 우리는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부동산을 거치게 되지. 이렇게 부동산 중개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을 중개보수라고 해. 다른 말로 '중개수수료', '복비'라고도 하지. 중개보수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인지 토지인지 등 거래하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거래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다 달라.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등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

## 86. 중도상환수수료

by. 요쿠르트

중도상환해약금과 같은 개념이야. 대출을 상환 기일이 오기 전에 미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

부담하는 비용이야.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5%라고 할 때, 만약에 내가 1억을 대출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150만원이 나온다고 볼 수 있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어.

- 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 상품인 경우
- ② 계약자가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③ 계약에서 정한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등의 이유로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참고자료: 우리캐피탈 홈페이지

## 87. 중위소득

by. 완두콩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구들을 많은 소득부터 적은 소득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하는 거야!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  
예를 들어 키로 설명하자면, 170/168/167/165/153/150/140의 키가 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 165가 여기서 중간값이 되는 거야. 평균이 아니라서 끝에 있는 큰 편차에 영향을 받을 일이 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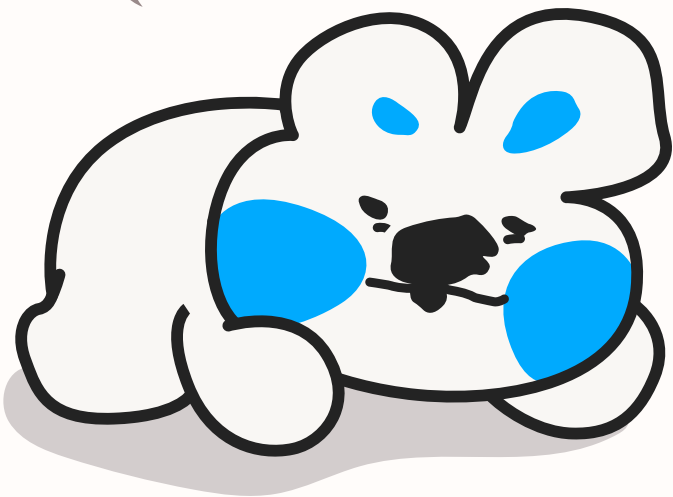
	2023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해당 표는 통계청, 가구동향조사에서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으로 중위소득 100%라고 표현해!



1인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라고 한다면, 100%인 2,077,892 X 1.8  
= 3,740,205로 374만 205원이하라는 뜻이 돼!

(HELP)





## 88. 차상위계층

by. sophia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근로 능력과 고정자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빈곤이 있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야.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계층, 잠재적인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 89. 채권

by. 오한솔

매일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야. 일종의 '빌린 금액에 대한 빚 문서'지. 빌린 자금의 기한(만기일)과 이자율, 원금(액면가)이 적혀 있대!

발행기관에 따라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공채, 일반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불러.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 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해.

\*신용유의자란,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등록 기준은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날(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91. 취업취약계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

이 계층에는 실업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중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취업자 등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말해.

## 92. 취업애로청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애로(隘路)는 좁고 험한 길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대. 그래서 취업애로청년은 말 그대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칭하는 용어야.

기준 연령은 만 15~34세 (2023년 기준 1989~2008년 출생)이고,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애로 유형은 다음과 같아.

- ① 6개월 이상 실업
- ②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③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⑤ 자립지원 필요 청년
- ⑥ 북한이탈청년
- ⑦ 폐자영업 청년
- ⑧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93. 탄소중립

by. 올리브

‘탄소 배출이 적으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중립은 또 뭐야?’ 해서 찾아본 단어.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중립을 이룬다는 의미. 즉,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해. 영어로는 Net-zero, carbon zero라고 부른다.

## 94. 통상임금

by. 로쿠리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처럼 다른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이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을 때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정말 근로를 제공했는가?

②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고려해서 정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급여에는 대표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이 있어. 통상임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 를 참고해.



## 95. 4대 보험

by. 서녕

4대 보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니?

4대 보험은 노령, 실직, 질병 등에 대비해서 사회보험에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야.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해.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하기에 소득의 재분배 기능도 갖추고 있어.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재보험은 사업주에서 100%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해.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볼까?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을 때 국가에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야. 월 급여의 9%만큼이 이에 해당하고 사업주와 50%씩 부담하므로 4.5%만큼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국민연금이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상제도야.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실업 급여와 연계되어 있는데, 노동근로자들이



일 자리를 잃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구직급여와 일 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야.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야. 그 비율은 업종별로 달라. 부상이나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군일수록 그 보험료율도 높아지겠지!

## 96-1. DTI(총부채상환비율)

by. 로쿠리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구입자인 나의 연 소득(=Income) 중에서 내가 진 빚 (=Debt)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해. 은행에서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잖아? 그런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거액을 대출해 준다면 그 돈을 다시 은행이 돌려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 그렇게 되면 은행 역시 무제한으로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주택구입자의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나온 값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데 사용되는 계산비율이 바로 'DTI'야.

## 96-2. DTI(총부채상환비율)

by. 지꿀이

이 용어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용어와 같이 쓰이고 있어.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 얼마를 사용해 부채를 갚는지 등을 바탕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대출 한도를 결정짓게 되지. DTI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 중 부채를 갚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는 뜻이고, 그 말은

부채 상환 능력이 좋다는 의미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규모도 커지게 돼! DTI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

**DTI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연간 소득 \* 100(%)

여기서 큰 특징은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확인한다는 부분이야. 원금 상환액까지 확인하게 되면 계산이 더 까다로워지고 평가가 엄격해지겠지? 하지만, DTI를 포괄하여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개념인 DSR이 생겨 DTI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해. DSR은 다음 용어 설명에서 참고해줘.

**\*다른 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 외에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을 의미해.

## 97.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by. 지꼴이

이 용어는 Debt Service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라고도 해.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확인하는 DTI와 달리, DSR은 다른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DSR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

**DSR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100(%)

즉,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모두 확인한다는 점이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SR 조건을 맞추는 게 더 까다롭고, DSR 기준을 충족하면 DTI 기준도 충족한다고 해.

**\*정리하자면!**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의 '원금'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DSR,  
다른 대출의 '원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DTI 비율을 따진다는  
의미야.

## 98. ESG

by. 로쿠리

요즘 기업의 트렌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ESG'야!

ESG는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행보, 사회적 책임 경영,  
불평등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투명한 경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야.

현재 세계는 심각한 지구온난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점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또,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를  
겪어오면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중요시하게 되었지.

이를 바탕으로 ESG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되었고, 현재는 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문화복지 정책에서도 ESG를 키워드로 잡고  
있어.

ESG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법으로도 제정해두고 있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참고자료: CJ 뉴스룸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내가 만약 주택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이 지표를 꼭 사용하게 돼. 내가 주택을 건다고 해서 무제한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LTV는 내가 담보로 건 주택의 가격 대비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을 나타내!

예를 들어, 내 주택이 10억짜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20%라면 나의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은  $10억 \times 0.2 = 2억$ 이 돼.

단, LTV는 지역별, 주택 가격 구간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해. 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어느 지역인지,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LTV 80%를 적용해주므로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 뒤~

\*참고자료: 부지런한 개미 네이버 블로그

## 99-2. LTV

이 용어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하여 얼마의 비율로 대출을 해줄 지 결정할 때 쓰는 말이야.

쉽게 말해, 담보로 내놓은 내 집의 가치를 판단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해주는 비율을 말해! 내 집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는 거지. 주의할 점은 보유하거나 구매할 주택의 실 거래가가 1억이라고 해서 담보가치로 1억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이야. 대출 당시에 공신력 있는 가치 평가 자료 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해. LTV 계산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에서 참고해!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의 LTV가 60%라면, 나는 1억원의 60%인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또,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이 주택의 LTV가 40%라면,

5억 원의 40% 인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거지.  
(하지만, LTV는 대출 최대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

## 100. m<sup>2</sup>

by. 올리브

보통 집 보러 다니거나 할 때 8평, 12평, 25평처럼 '평'이라는 단위를 쓰잖아? 근데 면적을 나타낼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m<sup>2</sup>(제곱 미터)라서 요즘은 제곱미터 표기가 늘고 있어. 평수로 말하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알겠는데 제곱미터는 영~감이 안 온단 말이지. 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3.3으로 나누는 거야(정확하게는 3.3058 이야!).

만약 '임차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 신청 가능'이라는 신청 공고를 봤는데 우리집은 8평 원룸이면 신청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85를 3.3으로 나눠볼까? 그럼 25.75757575757576이 나오는데 25평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한 거니까 8평은 신청 가능하겠다!



✳말대숲 청년정책 용어집의 저작권은 '열고닫기'에 있으며, '열고닫기'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도용·복제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opcl.kr/>

열고닫기

이메일 [helloworld@dodohancollabo.com](mailto:helloworld@dodohancollabo.com)

대표전화 070-4159-5014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2023.11.24

# 열고닫기

단한 정보를 열린 지식으로,  
열고닫기

OPEN  
CLOSE



We brighten the world  
through information.



열고닫기 이용하기